



강진만은 지금 개불잡이 한창!

지난 1일 오후 1시 강진군 신전면 사소리 앞 북섬 인근 마을 공동 어장.

어렵사리 배를 얻어타고 북섬에 다다랐을 때 허리까지 차오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280여 명의 주민들이 호미와 채알개미를 사용해 개불잡이에 부신했다. 지난 1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 개불잡이다. 개불잡이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날은 일년에 2~3일에 불과하다.

마을 어촌계에서는 북섬 인근 어장을 공동관리하고 4~5년 전부터 1년에 2~3차례만 개불잡이에 나서고 있다. 한정된 어자원이다 보니 마을어촌계 147호의 농가에서 딱 2

잔물·민물·개펄 적당히 섞인 '천혜의 어장' 하루 6시간 작업 가구당 최고 150만원 수입

명씩만 바다에 나갈 수 있다.

마리당 도매가격은 1천원. 한집 2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 경우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0만원에 달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이어서 호미로 작업해야 하는 노인층보다 쇠스랑 같은 기구로 물속에서 개미를 퍼올려 채알개미로 흔들어 잡는 젊은층 수확량이 더 많다.

강진만은 연안해안 완도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km에 걸쳐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독특한

자연환경 때문에 잔물과 민물, 모래와 돌, 개펄이 적당히 섞인 서식조건 때문에 사초리 북섬 인근에 천혜의 어장이 형성돼 있다.

개불은 '오독오독' 씹히는 맛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개불과 연체동물. 전통적으로 남부지방 사람들이 먹는 토속음식이었지만 최근 사람들의 입맛을 끌기 시작하며 일반에 널리 알려진 수산물이다.

요즈음 개불의 인기가 높다 보니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소리 개불의 경우 육질이 두껍고, 입

안에서 씹히는 맛이 활진 것이 특징이다.

오후 7시께 섬 주위로 밀물이 들어차 더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하나 둘 채비를 챙겨 배에 올랐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새벽까지 개불 배를 따서 일회용 도시락에 포장해 냉동보관을 마친 후에야 눈을 붙일 수 있다.

여성수 사소리 어촌계장은 "과거에 비해 서식환경이 나빠져 물량이 줄고 있다"며 "현재 국립 해수면연구소 강진출장소에서 강진만 자연환경에서 개불 입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육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아직도 송정리? 이젠 '송정지구' 광산 옛 도심권 명칭 통일

광주시 광산구 옛 도심권이 '송정지구'로 명명(命名)된다.

광주 광산구는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지역을 총칭해 '송정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의 이 같은 방침은 광주에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송정리', '송정리역' 명칭이 일부에서 쓰임에 따라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송정리는 지난 1988년 5월 1일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송정동'으로, 송정리역은 호남선 개통 이후 96년만인 지난해 4월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외부에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명품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아직 송정리로 통용되는 옛 도시권을 '송정지구'로 명명하고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김덕란 의병장 창의록 등 10건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강진군이 전통의 맥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김덕란 의병장 창의록'(사진) 등 10건을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최근 지정했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김덕란 의병장 창의록 ▲한옥 국악 전수관 ▲항공기 선각자 조경연 생가 군동 하신 배틀놀이 ▲마량 영동 별신굿 ▲성전 월촌 강강술래 ▲한글서예장 정윤식 ▲도자공예 윤도현(청자대작조형장) ▲도자공예윤윤섭(청자유약장) ▲도자공예 이상림(청자상형장) 등 10건이다.

재란 당시 의병에 함께 참여했던 서희서가 1599년(선조 22년) 강진출신인 김덕란 의병장의 활동상 기록한 22쪽의 서책이다.

강진군 운영현 관광개발팀장은 "이번 지정으로 모두모두 39건의 유·무형 향토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화순 영산강 상류 7개마을 하수도 정비

"고로쇠 마시며 새 봄 만끽하세요"

162억 들여 내년 완공

화순군이 영산강 상류에 자리한 7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영산강 상류지역인 도곡면 천암리 등 7개소의 마을하수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162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공사에 착수, 오는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해 ▲도곡면 천암리 ▲한천면 한계리 ▲도암면 정천리·원천리 ▲산간면 석정리 ▲춘양면 가봉리·산간리 ▲정풍면 차리 ▲도곡면 월곡리 등 7개마을 하수처리장을 완공한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한



하수도정비 공사 관계자들이 최근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서 수로를 만들며 측량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데 모아 이를 깨끗한 물로 정화해 흘려보내게 된다.

기존에는 마을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매년 주기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하천에 생활하수를 직접 방류해왔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하수도 정비

사업이 끝나면 영산강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건물신축시 정화조 등 우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주민의 생활편의증대와 주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장성 13~14일 고로쇠축제

채취 체험 등 행사 다채

'제4회 장성 백양 고로쇠 축제'가 오는 13~14일 장성군 북하면 남장계곡 일대에서 개최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생존 청정 고로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장성군과 산림조합에서 후원하고 장성 백양고로쇠협회가 주관한다.

축제 첫날인 13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백암산 등반대회, 판소리·한춤·민요공연, 고로쇠 빨리 마시기 대회, 고로쇠 즉석 경매, 고로쇠 가요제가 열린다.

14일에는 '고로쇠 7080 콘서트'가 펼쳐져 초청가수 노래와 함께 통기타, 빨리 댄스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상설행사로 장작 패기, 고로쇠 채취체험, 페이스 페인팅, 가운 써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 백양고로쇠협회는 품질향상을 위해 채취 횟수를 한 그루당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홍길동 캐릭터가 새겨진 지역명품 인증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문의(061-393-9896)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광주일보 전남중부취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 본부장 김용기
- 기원태 국장
- 최승렬 부장
- 이상규 차장
- 정철현 기자
- 남철희 기자
- 정운수 기자
- 김용호 기자
- 노정훈 기자



봄 입맛 사로잡는 쌈 채소 지난 3일 담양군 수북면 황림리 친환경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농민들이 유용기능으로 가문 쌈채소 케일(kale)을 수확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쌈채소는 2kg 한 상자당 1만2천원에 백화점 등에 출하되고 있다. <담양군 제공>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해외사용가능)

요령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대학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3년
- 입학: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임상학/중의의결합임상/중약학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www.wchina.co.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연설 집중훈련)

-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2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3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4 교육기간: 2010년 3월 6일 ~ 6월 25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0년 1월 25일(월) ~ 3월 3일(수) * 등록시간: 월 ~ 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관 4층
- 7 등록방법(수강료: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 수여(총장명함),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피견, 각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9 담당교수: 한 상 태 - 한국공무원연설인명위원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실 전국응원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공무원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응원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 (1,920평)
- 건물: 1,685㎡ (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011-612-2823
이메일: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27억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41-0163369호 ·
· 전화: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